

- 환영 :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- 신약성경 읽기 : 2014년 하반기 전교우 신약성경 1독에 참여합니다. (메시지성경)
- 여선교회 : 오늘 예배 후 정기월례회로 모입니다. (예배실)  
(10월 식탁봉사 : 1주 다같이 2주 A조 3주 B조 4주 C조)
- 예배 :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 및 친선체육대회로 드립니다.
- 교회학교 교사모집 :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실 분은 자원해 주세요.
- 교회학교 예배실 청소 : 오늘 예배 후 교회학교 예배실 대청소 합니다.
- 교회일정 : 10/5 (일) 11시 연합예배 및 한사랑 친선체육대회 (별지 안내참조)  
10/12(일) 정기제직회 (예배후)  
10/25(토) 제직 일일수련회 (오전 10시-16시)  
주제: 하나님의 선교 (Missio Dei)
- 기도제목 : 1) 삶으로 예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 
2)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
3) 나라와 민족,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 
4) 목회자와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

■ 지난 주일 통계 ■

십일조 :  
감사헌금 : 서인원정지운 윤혜숙 신희철홍미향 조승래박영신 무명 3  
구역헌금 : 1,3구역

지난주 출석 : 성인 32 청소년 7 주일학교 11 유아 2

■ 유로룩스가 함께 하는 협력선교 ■

지역선교	Luxembourg 교회연합
민족선교	Opendoor 동아시아 사업부
아프리카 선교	북아프리카 E국 양승천 선교사
동유럽선교	헝가리 부다페스트 신성학 선교사
서유럽선교	미자립 한인교회 (독일 괴팅엔 새봄교회)

■ 교회를 섬기는 이들 ■

담임목사 : 서인원      교회학교 : 박영신/이귀영  
성 가 대 : 홍미향      반주 : 강주현/서혜승/김정선  
남선교회 : 김상운      여선교회 : 최진영  
예배부장 : 윤혜숙      봉사부장 : 서민정



2014 교회표어 :  
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



올해의 성구 : "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" (시73:28)

# 주 일 예 배 순 서

【성령강림절 후 16주, 녹색】

주일오후 13:30 pm

## 9월의 찬양 : 오 신실하신 주

예배로의 부름 .....	반주자	
입 레 송 .....	인도자	
기 원 .....	시편 34:8 .....	인도자
♣ 영 광 송 .....	42. 거룩한 주님께 .....	다함께
♣ 성시교독 .....	4. 시편 5편 .....	다함께
♣ 신앙고백 .....	사도신경 .....	다함께
♣ 찬 양 .....	310. 아 하나님의 은혜로 .....	다함께
대표기도 .....	강주현 집사	
응 답 송 .....	시온성가대	
성경봉독 .....	요 11:1-16 .....	한경덕 성도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”  
“하나님, 감사합니다.”

봉독자  
다같이

찬 양 .....	시온성가대
말 씬 .....	서인원 목사

## “ 성령의 사람 (14) - 베다니의 삼남매 ”

기 도 .....	설교자	
찬 양 .....	291.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.....	다함께
봉 헌 .....	다함께	
평화의 인사 .....	“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” .....	다함께
교회소식 .....	다함께	
♣ 파송찬양 .....	429.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.....	다함께
♣ 축 도 .....	인도자	

♣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 
(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.)

♣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  
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.

# 오늘의 말씀 / Today's text

## 요한복음 11장 1-16절 / John 11, 1-16

-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.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는였다.
-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,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린 사람이었다.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다.
-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. “주님,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.”
-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. “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.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.”
-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.
-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,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다.
- 이틀 후에,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다시 유대로 가자.”
- 제자들이 말했다. “랍비님, 그리로 가시면 안됩니다.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, 다시 가시다니요?”
-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“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? 낮에 다니는 사람은 햇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.
-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.”
-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.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.”
- 제자들이 말했다. “주님, 그가 잠들었다면 꼭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.”
-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,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.
-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다. “나사로가 죽었다.
-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.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. 이제 그에게 가자.”
- 바로 그때 ‘쌍둥이’ 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. “갑시다.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.” (메시지 신약성경)

## 예 배 위 원

	9/28	10/5	10/12	10/19	10/26	11/2	11/9
기도위원	강주현	연합체 육대회	김상윤	최진영	송영찬	추수감 사주일	
성경봉독	한경덕		신예선	이지아	장진혁		
강단 꽃장식	10월 이귀영			11월 서혜승			